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안나 예언자와 시메온 의인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뜨리오디온 시작

성 에프렘 시리아의 수사, 성 하리토스 순교자

제1조 /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시기송 / 220. B 270
- 사도경 : 디모테 후 3,10-15 / 봉독서 407
- 복음경 : 루가 18,10-14 / 133. B 8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하느님을 품에 안은 시메온과 안나 예언자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대축일 다음날을 대축일로 기념되는 하느님의 신성한 신비의 역사에 기여한 거룩한 인물들을 존경하면서 기념하는 연관축일로 지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대축일 다음날엔 하느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를, 신현 대축일 다음날엔 세례자 요한을, 그리고 2월 2일 주님의 입당 대축일 다음날인 2월 3일에는 하느님을 품에 안은 시메온과 안나 예언자를 기념합니다. 이 두 성인은 연로할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 안에서 살았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 직접 뵈고 경배 드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나이다.”라는 거룩한 시메온의 기도는 매일 만과에서 봉독됩니다. 시메온의 기도를 통해, 우리 정교 신자들은 시메온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본 시메온에게 생의 마지막은 밤과 같이 고요했고, 죽음은 잠과 같이 편안하고 달콤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I고린토 15:58)

성경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참하느님을 향한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당신(하느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어떤 불신도 용납지 않으시는 질투하는 신랑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주, 곧 질투하는 신이다.”(출애굽기 34:14)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길 바라십니다. : “내 아들이야,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다오.”(잠언 23:26)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과 우상숭배로 옮겨갈 때마다,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상징을 통해 설명합니다.(호세아 2:21, 이사야 54:5)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은 간통과 매춘과 같은 것이라고 질책합니다.(호세아 2:4) 창녀가 자기 몸을 탐하는 남자에게 굴복하듯이 백성이 하느님이 아닌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가 항상 진실하고 굳건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참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거짓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와 혼합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참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바알 신 숭배가 혼합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참된 하느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큰 혼란이 일자 엘리야가 나서서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즉, 바알이든 주 하느님이든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제3의 선택은 존재할 수 없

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배신자들에게 던져진 냉혹한 질문이요 딜레마였습니다. :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열왕기상 18:21)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첫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마르코 12:29~30)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재물이나 다른 것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마태오 6:21) 그리스도께서는 전부를 원하십니다. “다른 누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마태오 10:37)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아르와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까?”(II 고린토 6:14~15)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1) 하나는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의 굳건함입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해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기반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또 하나는 첫 번째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신자들이 복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요구되는 굳건함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실천해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 3면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트리폰 수도원장(미국 워싱턴주의 정교회수도원 원장)

웃음은 전염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환하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누군가가 있을 때, 방 안 전체가 밝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과연 진심어린 웃음보다도 더 나은 어떤 선물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해 전 저는 숲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젓한 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저는 조금 놀랐지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느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다가, 가지고 온 샌드위치와 커피를 함께 먹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가방을 열고는 제 점심 도시락을 꺼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는 제게로 향하더니 총을 꺼내 보여주며, 자살하려고 이렇게 외파로 떨어진 곳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긴 머리칼과 수염, 그리고 시커먼 옷을 걸치고 나타났을 때, 그는 저를 하느님의 천사로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르려던 행위에 대해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천사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가 겪고 있는 시련과 절망의 시간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총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삶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 젊은이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잠시 멈추지 않았다면, 웃음과 샌드위치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제 갈 길만을 계속 걸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자주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입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의 증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요한 14:15)

만약 올바른 믿음만 있고 올바른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17) 성경과 사도전승을 통해 전해 받은,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어의 문법과 구문론을 배웠다하더라도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실천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법과 구문론은 쓸모없습

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해도, 아무런 차별없이 하느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적 신앙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계명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천에서는 무력하고 공허한 계명이 되고 맙

☞ 4면으로 계속

☞ 3면에서 계속

니다.

3) 이 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다종교 다교파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사를 가듯이, 심지어는 옷을 갈아입듯이 쉽사리 종교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

를 믿다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다시 개신교회를 나가다가 또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가 결국엔 ‘무신론자’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러 종류의 타종교 의식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을 보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소 식

대교구

■ **프리오디온 기간 시작** ▷ 오늘 1월 28일 주일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프리오디온 기간은 우리 정교회의 일 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에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프리오디온 첫 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출국** ▷ 오는 2월 1일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께서 세계총대주교와의 특별 접견과 그리스의 아테네, 예기나, 파트라에서의 특강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무사한 여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정 성수식 신청** ▷ 오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에서도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수식을 거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월 30일(화) ▷ 성 대 바실리오스,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3대 교부 축일

· 2월 2일(금)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성 대 바실리오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 그레고리오스 3대 교부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